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357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5월 3일 월요일(음력 3월 22일)

제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삐끗'

화이자 수급 불안정에 이달 접종 계획 차질 불가피
도, 2차 접종 주력… 서귀포시 접종센터는 잠시 중단
7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꼴 1차 접종조차 못해

전국적인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 사태로 이달 제주지역 백신 접종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달 도내 화이자 백신 1차 신규 접종·예약은 사실상 중단되며, 기존 예약된 1차 접종과 2차 접종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 이달 기존 예약된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 주력한다고 2일 밝혔다. 사실상 한달 가까이 신규 접종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백신의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5월에는 당분간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자제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등은 이달 1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1, 2차 접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1차 접종자들은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이에 정부는 2차 접종 일정이 한꺼번에 도래하면서 혹시 모를 수급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1차 접종을 최대한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도내에선 현재 배정된 화이자 백신 물량에 따라 7일까지 1·2차 접종을 동시에 진행한 후 8일부터는 1차 접종을 보류하고 2차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주시예방접종센터에선 이달 7일까지 1·2차 접종을 동시에 진행하고, 8일부터 21일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4월 10일부터 30일까지)한 이들 대상 2차 접종만을 추진한다. 현재 이곳엔 5538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남아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의 경우 4일까지 1차 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이 잠시 중단된다. 이곳엔 화이자 백신 1068회분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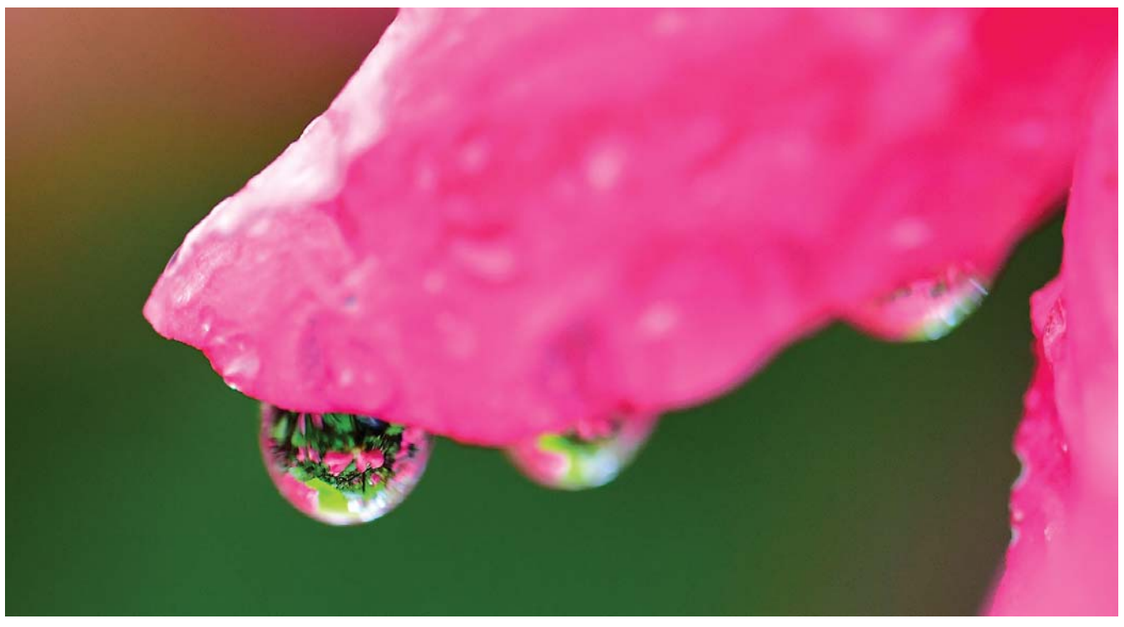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중 1차 완료자는 1만5923명, 2차 완료자는 2951명이다. 지난달 초 기준 제주지역 75세 이상 인구수는 4만6939명으로, 아직 66%(3만여 명) 이상이 1차 접종 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 화이자 백신은 총 6회에 걸쳐 2만5740회분이 배정됐으며 지난 1일 기준 6066회분이 남아 있다. 이날 기준 2만1861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며 1차 완료자는 1만5923명, 2차 완료자는 2951명이다.

도는 현재 가동 중인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중단되지 않도록 빠른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질병관리청에 발송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1차 접종 예약이 계속될 경우 2차 접종 물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며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 배정된 물량에 대한 접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참꽃 품은 물방울 1일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 공원에 활짝 핀 참꽃에 맺힌 물방울 속에 참꽃이 보인다. 강희만기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제주,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제주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3일까지 3주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오는 6월말까지는 하루 평균 환자 수를 '1000명 이내'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2.43명씩 발생해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지만 도방역당국은 4월에만 8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또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한편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도 지난달말부터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자가검사 키트는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지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울 때 사용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4·3트라우마센터 국립기관 승격 추진

오는 6일 개소 1주년 맞아
1년간 500여명 센터 이용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돼 개소 1주년을 앞둔 제주 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기관 승격이 추진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6일 개소 1주년을 맞는 4·3트라우마센터는 제주4·3 등 국가폭력 생존희생자, 유족 및 관련자에 대한 정신·신체적 치유와 재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설이다.

센터에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4·3생존희생자 뿐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 등 과거사 및 국가사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말 기준 4·3트라우마센터에 직접 등록해 이용한 이들은 4·3 생존희생자 64명, 유족 378명, 강정마을 주민 82명, 직·간접적 4·3관련자 32명 등 총 556명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 법제화 계획에 따라 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기관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일 열린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 되는 대로 (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다혜기자

도, 내년 복권기금 사업비 1679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복권기금 사업비로 1679억원을 확보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0개 법정 배분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제주는 6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391억원 늘어난 1679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제주도의 성과 평가 순위는 9위였다.

기획재정부 복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과거 복권을 발행한 7개 정부 부처와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 총 10곳 법정배분기관을 상대로 예산 집행률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 등을 평가해 복권 기금 사업비를 배정한다.

제주도는 복권기금 사업비로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해서도 별도로 71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71억원을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코로나19 2일 18시 기준 확진 716(1)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오니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환경영향평가	지하수시공 및 사후관리	토목 및 상하수도설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시공)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후 환경영향조사	- 지하수 시공 - 영향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지하수 사후관리	- 도로설계, 부대토목 - 상하수도설계	- 건축물 안전점검 - 건축물 보수 보강 설계 및 시공
자격요건	- 학력 : 초대졸 이상 - 신입 및 경력 - 경력 : 기술자등급 고급(7년 이상)	- 학력 : 무관 - 경력 : 3년이상(과장급)	- 학력 : 초대졸 이상 - 경력 : 5년이상 (대리~부장)	- 학력 : 초대졸이상 - 경력 : 3년이상 - 운전가능자
근무요건	- 정규직 - 주5일 근무 - 연봉제(면접시 협의)	- 정규직 - 주5일 근무 - 연봉제(면접시 협의)	- 정규직 - 주5일 근무 - 연봉제(면접시 협의)	- 정규직 - 주5일근무 - 연봉제(면접시협의)
제출서류/접수방법	▷ 회사위치 : 제주시 서광로 157, 3층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aesin4209@daum.net) ▷ 제출서류 : 이력서(희망연봉기재), 건설기술인협회(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 경력증명서			

태신엔지니어링 Taesin Engineering & Construction 문의 인사총무팀 Tel. 070-7708-2660 Fax. (064)759-7536